



우리나라 기생충 관리사업, 국제적 모범사례

건협의 30년 기생충관리사업, 국제학술대회서 평가

WHO는 우리나라의 기생충관리사업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말부터 태국의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열대의학회 및 말라리아 학술대회에서 “회충집단관리 성공사례”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WHO의 요청으로 성공사례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의대 기생충 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은, 지난 30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속해 온 기생충 구제사업과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및 풍토병연구소에서 경기도내의 1개 농촌지역을 선정해 실시한 집단투약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교수팀은, 60년대 초부터 한국건강 관리협회와 정부, 학계가 합심하여 전국적 차원의 회충집단관리사업을 차실히 전개한 것과 국민들의 전반전 생활수준 향상, 위생상태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 회충감염율이 0.1% 이내로 현격히 감소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상태에서 기생충 관리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또다시 기생충이 만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간흡충, 요충 등의 특수기생충의 감염율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협 경북지부 전화번호 변경 안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의 전화번호가 지난 9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후 전화번호	변경 전 전화번호
941-9010	92-9010
953-5024	93-5024

교육청 보건관계자 초청 간담회 가져

건협 서울지부, 학교건강관리에 관한 의견 교환



▲ 학생·교직원 건강관리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서울시지부의 교육청 보건관계자 초청간담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는 지난 9월4일, 교육청 보건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지부 홍보관에서 가졌다.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 보건과장, 보건계장을 비롯해 강동구 교육청 등 9개 구 교육청의 학교보건계장, 서울지부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하는 일, 대국민 보건계몽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직원 특수 검사 안내 등이 있었으며, 학생돌연사의 심각성과 심장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건강관리를 위한 건협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진일보함으로써 내년도 사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이종희 과장 자녀에 장학금 지급키로

건협 과소장 모임 健友会서 결정

한국건강관리협회 과소장들의 모임인 健友会(회장, 윤정하 총무과장)에서는 본부 전 총무과장 고 이종희씨의 장남 이규상군(배문중 2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우회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이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 보조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만장 일치로 결정해 주변의 찬사를 받았다.



健協 崔振學 회장, “위암집단검진법” 연구

오는 10월12일 일본 동경으로 출국



최진학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위암집단검진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 오는 10월12일 일본 동경으로 출국한다.

지난 ’88년 동경대학 제8연구소에서 위암진단 견습과정을 연수 중 위암 조

기 집단검진법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최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11월14일까지 34일간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PepsinogenⅡ의 생화학적 연구, 일상검사에의 적용시험, 위암의 조기 집단 검진 실습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회장의 이번 연구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집단검진을 통한 위암의 조기 발견을 보다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지부, 공개강좌 계획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부산지부가 10월 공개강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강좌시간은 오후 2시이며, 장소는 해당지부 홍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부(서울 601-7161~5, 부산 553-6401~4)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지부

- 10月8日 : 유방암의 조기발견(여의도 성모병원 이재학 교수)

- 10月22日 : 체장질환(한강성심병원 최원진 교수)

◎ 부산지부

- 10月22日 : 갑상선질환의 예방 및 관리

결연 이웃에 따뜻한 사랑

건협 본부 직원, 천사의 집 등에 선물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지난 9월 8일 추석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결연을 맺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협회 직원들이 마련한 선물은, 협회 직원과 결연을 맺은 천사의 집, 영등포 종합 사회복지관, 한사랑 마을, 불우노인 사회복지회 등 4곳에 각각 전달되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년에 비해 이웃 사랑의 손길이 줄어들어 더욱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대 건강교육과 학생, 보건실습

지난 9월16일, 건협 서울지부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건강교육과 곽정옥 교수를 비롯한 4학년생 15명이 지난 9월16일 건협 서울지부를 방문했다.

지역사회 보건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건협을 방문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본회, 검사실을 견학하고, 협회의 대 국민 보건계몽사업 현황, 건협이 하는 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